



##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 인쇄기 3종·인쇄 전용지 출시 신제품·전용지로 2012 디지털 시장 공략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http://www.fujixerox.co.kr))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인쇄기 신제품 및 디지털 인쇄 전용지 프로디지털(pro-digital) 출시와 관련한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mailto:kjcho@print.or.kr)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하이엔드 모델인 '컬러 1000 프레스 LGDI(Low Gloss Dry Ink)'와 '컬러 800 프레스' 그리고 엔트리급 모델인 '700i DCP' 등 3종이다. 700 DCP와 컬러 1000 프레스는 각각 2009년과 2010년 출시되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들이며, 한국후지제록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제품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소개된 디지털 인쇄 전용지 '프로디지털(pro-digital)'은 디지털 인쇄 환경에 최적화된 전용지로 지난 2월 국내에 출시됐다. 전용지는 무림페이퍼가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국내 마케팅 및 판매는 한국후지제록스가 맡는다.

### 컬러 1000 프레스 LGDI & 컬러 800 프레스

기존의 컬러 1000 프레스는 인쇄물에 코팅의 느낌을 가미할 수 있는 '클리어 드라이 잉크(Clear Dry Ink)'를 옵션으로 제공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후지제록스는 오프셋 인쇄와 같은 저광택 코팅 효과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잉크의 알루미늄 함량을 조절해 '저광택 드라이 잉크(LGDI, Low Gloss Dry Ink)'를 개발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클리어 드라이 잉크'와 '저광택 드라이 잉크'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컬러 1000 프레스 LGDI는 분당 최대 100매, 컬러 800 프레스는 분당 최대 80매의 풀 컬러 인쇄가 가능하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컬러 800 프레스 출시를 통해 미드레인지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상업 인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700i DCP (700i Digital Color Press)

이 모델은 국내 엔트리급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700 DCP의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자동 양면 작업의 용지 수용성을 기존 최대 220gsm에서 300gsm으로 확대하고, 어도비 PDF 프린트 엔진 2.0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서버로 교체했다. 700i DCP는 2400dpi의 해상도에 분당 70매의 속도로 풀 컬러 인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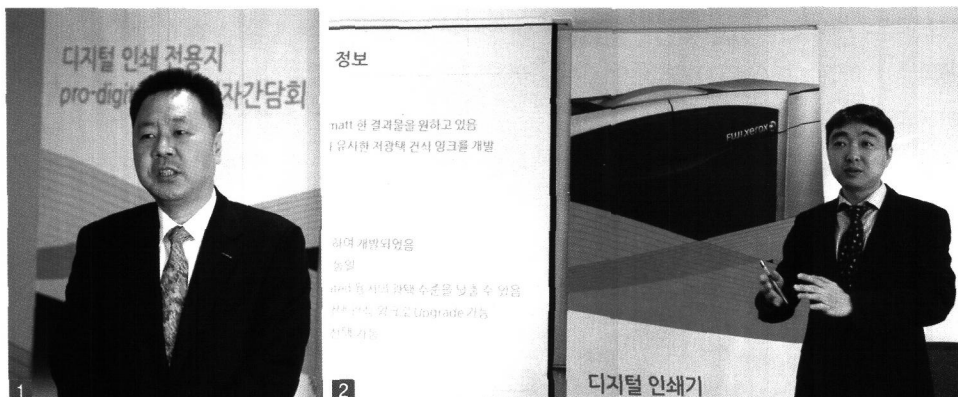
컴팩트형 사이즈임에도 다양한 후처리 옵션구현이 가능해 코팅지·비코팅지를 활용한 중철 소책자, 카탈로그, 설명서, 3단 접지 브로슈어, 인쇄 엽서, DM, 포토북 등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에 유용하다. 또한 급지부(피더)와 서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후처리 장치를 고객이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 고객의 사업환경이나 니즈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EA 토너보다 20도 가량 낮은 온도에서 인쇄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EA-ECO 토너를 사용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였다.

### 디지털 인쇄 전용지 ‘프로디지털(pro-digital)’

최근 국내 인쇄 시장이 디지털 인쇄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인쇄용지의 경우 아날로그 방식인 오프셋 인쇄에 사용하는 용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색상 품질 불량이나 부품 손상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인쇄 전용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디지털’ 디지털 인쇄 전용지는 인쇄용지 전문기업 무림페이퍼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국후지제록스가 국내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한다. 이 용지는 토너와 드라이 잉크의 접착성이 뛰어나고, 고온 인쇄에서의 품질 불량 방지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디지털 용지 전용 재단기를 사용해 불량 재단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디지털 인쇄기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이 외에도 기존 용지들과 달리 림 단위로 포장 판매되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용지 변형률이 적어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한다. 한국후지제록스가 이번에 선보이는 ‘프로디지털’ 디지털 인쇄 전용지는 ‘글로벌’과 ‘실크’ 등 2종이며, 향후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후지제록스는 올해 강화된 라인업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으로 고객의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인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고객 대상 세미나 개최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1. 신상현 마케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윤광상 PS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가 신제품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